‘1946년 화순탄광 사건’ 70년만에 뮤지컬로

잊혀진 역사 재조명 감동의 무대가 온다

22·23일 광주교육연수원 공연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 광주 기념대회에 참석했다 미군에 진압당한 비극적 사건 다뤄 자비 제작…서울공연 큰 인기 50여명의 배우 출연한 대작

‘1946년 화순 탄광 사건’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잊혀졌다. 화순 탄광 광부들은 1946년 8월 15일 광주에서 열리는 해방 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너릿재를 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군과 충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당한다. 화순 탄광 광부들의 비극적 사건이 뮤지컬 ‘화순’으로 되살아난 건 지난 해였다.

‘화순’은 초연 당시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객들의 요청으로 지난 17일까지 모두 20여차례 공연을 이어갔다. “터지는 에너지를 가진 ‘화순’에 지하 소극장은 너무 좁다” “진짜 계속 가슴이 두근 두근 뛰었다, 무대가 터져나갈 것같았다.” 연극을 본 관객들은 자발적으로 티켓을 후원하기도 하는 등 자비를 들여 공연을 이끌어 가던 배우와 스텝들을 격려했다.

‘화순’은 극단 ‘경험과 상상’의 대표 류성씨가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8년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화순 탄광 사건’을 알게된 그는 5년전 짧은 뮤지컬 대본을 쓰기도 했고, 팟캐스트에서 라디오 드라마로 방송하기도 했다.

그러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광복 70년’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싶어 작품 제작을 추진했다 .

“당시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인이 돼야 하지만 미군정과 소련 등 외세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죠. 화순 탄광 사건은 그 상황들에서 파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좌우논란 등 근현대사의 문제들이 터진 출발점이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봤어요.”

초연 당시 화제가 된 것은 작품 내용과 함께 100석 규모 소극장 무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50명의 배우가 출연해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다는 점이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출연배우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 류 연출가가 페이스북에 뮤지컬 제작 소식을 알리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다룬 이번 작품에는 꼭 출연해 보고 싶다”며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노 개런티로 참여했다.

작품은 서막과 2막으로 구성돼 있다. 서막은 1945년 8월 무너진 화순 탄광 15호 갱도에서 애타게 구조되기를 기다리던 광부들이 해방 소식을 듣게 되고, 구조된 광부들과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1946년 화순 탄광 사건’을 소재로 한 뮤지컬 ‘화순’의 한 장면. 〈극단 ‘경험과 상상’ 제공〉

1막은 해방을 맞은 탄광촌 사람들이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탄광을 직접 운영하지만 소유권이 미 군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8·15 광복 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가다 너릿재에서 미군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죽임을 당하는 광부들의 모습을 그린다. 2막은 미군정에 대항한 광부들의 파업과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정아씨가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강제권·권수진·김경선·김대희씨 등 50여명의 배우가 출연해 뮤지컬 넘버 31곡을 들려준다.

“서울 공연 당시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작품 속 대사나 노래 가사가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데 있는 듯해요. 우리 작품의 대사가 직선적인 편인데, 그게 억압된 마음을 풀어내는 통쾌함이 있는 것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류성 연출)

출연배우가 50명이 넘는 규모라 좀처럼 지방 공연은 엄두도 못냈지만 민주노총 광주 지역본부와 인연이 닿아 광주 공연을 진행한다. 22일(오후 7시30분) 23일(오후 2시·5시) 광주교육연수원 한빛관 대강당.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511-42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프랑스 문학의 거장 미셸 투르니에 별세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마왕’ 등 출간

“예찬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어떤 아름다운 음악가, 한 마리 우아한 말, 어떤 장엄한 풍경, 심지어 지옥처럼 웅장한 공포 앞에서 완전히 손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찬’ 중)

프랑스 문학의 거장 미셸 투르니에(사진)가 18일(현지시간) 저녁 파리 인근 이블린의 슈아셀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91세.

투르니에는 20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작가이자 철학자로 20세기 전반부 격변기를 몸소 체험한 대표적 지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1924년 독일계 가정에서 출생한 투르니에는 독일 튀빙겐과 소르본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칸트와 그가 영적 스승으로 존경해온 장 폴 사르트르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인간의 문명과 사회,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와 통찰을 철학과 신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세계로 사랑받았다.

투르니에는 1967년 마흔셋 나이에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재해석한 첫 작품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내놓아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수상했다. ‘방드르디…’는 문명과 야만, 진정한 자유에 대한 실존적 물음을 제기하는 소설로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1970년에는 어린이들을 나치 정권으로 끌어들이는 남자에 관한 소설 ‘마왕’으로 프랑스의 최고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황금 구슬’, ‘외면일기’,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간’ 등 소설과 에세이 등 그의 여러 작품이 번역, 출간됐다.

/연합뉴스

박진현의 문화카페

“메이드 인 대구 뮤지컬 ‘투란도트’, 내달 서울서 개막.” 며칠 전 신문을 넘기다 눈에 들어온 기사의 제목이다. 수많은 뉴스 중에서 이 기사에 시선이 간 이유는 3년 전 대구에서 관람했던 기억이 떠올라서다. 당시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하 DIMF)의 초청작 ‘투란도트’를 관람하고 느낀 생각은 “와, 물건인데!”였다. 스케일도 스케일이지만 작품의 완성도가 서울의 블록버스터 뮤지컬과 비교해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다.

푸치니의 동명 오페라를 새롭게 해석한 ‘투란도트’의 극중 배경은 중국이 아닌 가상의 물속나라 ‘오

대구산(産) ‘투란도트’가 부러운 이유

카케오 마레’. ‘메이드 인 대구’의 창작뮤지컬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화된 장치다. 줄거리는 오페라 ‘투란도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어머니의 잔인한 죽음으로 차가운 심장을 가지게 된 얼음공주 ‘투란도트’와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험에 나선 왕자 ‘칼라프’, 그리고 왕자를 사랑하는 시녀 ‘류’가 펼치는 희생과 사랑의 대서사시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객석을 가득 메운 중국관객들이었다. 대구시와 DIMF 사무국이 중국시장을 겨냥해 차이나풍의 음악을 가미한 전략이 통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 2011년 ‘한국의 브로드웨이’를 목표로 3년 간의 준비 끝에 내놓은 ‘투란도트’는 대구의 브랜드로 떠올랐다. 이후 지역 예술인들과 미흡한 부분들을 꾸준히 보완한 결과, ‘투란도트’는 중국 상하이 등에서 러브콜을 받는 귀하신 몸이 됐다. 그러고 보면 이번 ‘서울 입성’도 명성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

기사를 읽은 후 문득 광주를 상징하는 공연작품이 어떤게 있나, 생각해 봤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다. 두달 전 아시아 동시대 예술의 허브를 내걸고 공식개관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의 수많은 레퍼토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은 드물었다.

물론 개관 초기라 성급한 판단일 수 있지만 예술극장의 콘텐츠는 아쉬움을 주는 게 사실이다. 실험적인 내용이야 그렇다 해도 대부분 유럽이나 서구권의 콘텐츠들이다 보니 지역은커녕 아시아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16시즌 프로그램(아워마스터)으로 무대에 올린 이미지극의 대가 로버트 윌슨의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방향성 잃은 예술극장의 민낯을 드러낸 경우다.

1976년 초연 당시에는 스토리라인이 없는 파격적인 무대로 화제를 뿌렸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일부 공연전문가 이외에는 다가가기 힘든 전위 오페라다. 게다가 예술극장은 광주공연을 끝으로 영구 폐기되는 이 작품의 유치를 위해 3년 예산(80억 원)의 4분의 1인 20억 원을 들였다.

최근 문화전당의 콘텐츠 제작을 맡은 아시아 문화원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5개원의 예술감독 체제에서 전시사업실, 공연사업실, 교육사업실 등 실장 중심제로 운영체계를 변경해 콘텐츠의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모쪼록 이번 체질개선이 문화전당과 예술극장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회심의 카드가 되길 바란다. 광주는 ‘메이드 인 문화전당’의 명작을 보고 싶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문화전당, 30일 ‘ACT 랩 데이’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30일 ‘ACT 랩 데이’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창제작센터(ACT Center)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터스 인 랩(Creators in Lab)’ 참여자들이 벌이는 시민대상 융복합 워크숍·퍼포먼스 시연회다.

이날 ACT 스튜디오 1, 2에서는 오후 1시부터 총 6개 워크숍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AR/VR++와 모션 캡처 시스템’, ‘틴지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오디오 프로그래밍’, ‘웨어러블 신디사이저 만들기(초급)’, ‘사물인터넷(IoT)워크숍’, ‘LED 매트릭스 안에서 빛으로 그리는 그림(피지컬컴퓨팅 워크숍)’, ‘ACT 융복합 공예 워크숍’ 등이다.

각 프로그램당 입장료는 3만원이고 참여인원 10명이다.

문의 062-601-455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